



새 정부와의 공감대

김현희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해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진정한 새해가 밝았다면 지나친 말일까? 그 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전체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봄은 왔지만 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고사 성어가 있듯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그 동안 새해의 기운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또 그만큼 모든 촉각은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에 즈음하여 올해의 뉴 트렌드와 새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2013년 2월 ~ 2013년 3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S BASE, Kg당 100~150원 인상(2월 3주 기준) - LME, Kg당 140~160원 인상(2월 3주 기준) - 강관류, 단가 인상 전망(약 7~10%) - 형강류, 단가 인상 전망 - 강관 및 STS 용접부속, 상반기 단가 인상 가능성 확인됨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관류의 할인율이 3월초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조만간 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현재의 건설 경기로 볼 때 무리한 인상은 어려울 전망 - 철스크랩 단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형강류도 단가 상승 전망됨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동LME 시세는 5원 인하된 8,831원으로 확정 - 국제 동LME 시세는 톤당 8,075~8,272달러 가격으로 거래 중 - 국제 LME 시세가 약 4개월만에 상승 되는 추세 - 2013년 3월 동LME 시세는 인상 전망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STS관 BASE는 제조사에서 동결 확정 - 국제 니켈 시세는 톤당 17,935~18,600달러로 전월에 비해 다소 인상됨 - 국제 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건설 경기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지만, 원자재 상승과 제조사의 부담 가중으로 머지 않아 인상 가능성 있음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분기 들어 단가 인상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됨 - 상반기에 일정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자재 구매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단기 공사의 경우 현재 예측이 불투명한 가격 전망을 감안하여 계약 내역에 따른 입찰 견적, 선불 구매 등의 방법을 적절히 구사할 시점임

신정부 5대 국정 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올 초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나타날 10가지 변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만 살펴보면 우선 ▲잠재성장률을 밀도는 저성장의 지속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부실위험 고조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권 경영 본격 악화 등 경제 전반에 관한 암울한 트렌드가 등장한다. 다음으로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사회대통합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 ▲남북관계의 전환 모색 ▲한국형 복지체계 논의의 구체화 등이 화두로 등장한다. 끝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효율 경영구조로의 변신 가속화 ▲저(低)가격·고(高)가치 소비 확산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논의의 본격화 등을 들고 있다.

경제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면 우리 설비건설 가족은 새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 내용, 국정 목표 등을 보면 새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는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를 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견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하여는 업계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하

고 박사 학위를 받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건설산업 관련 포럼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건설·부동산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 또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건설 관련 규제 완화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과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온 면에서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 해결과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우리 업계가 새 정부 정책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것들에 대하여 적어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선부른 기대는 해봐도 될 듯싶다.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켄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